

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오리업계를 가장 어렵게 하는 AI가 발병한 가운데 자구책을 통해 AI를 극복하고 얻은 성과라 그 의미가 크다.

오리 산업은 같은 가금류에 속한 닭 계열화 사업과 비슷한 형태로 비교적 가공이나 생산 기반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내는 데는 성공하며 급성장했다.

하지만 생산과 가공부분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산업을 뒷받침해주는 후방산업은 동반성장하지 못해 오리 산업의 약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온 오리 산업이 앞으로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전 후방산업의 단계적인 동반 성장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종자 문제는 오리업계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다. 유전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AI로 인해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오리업계는 수급을 맞추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종오리의 수입량마저 충분치 못하다보니 도축을 해야 하는 실용오리 중 실한 것들을 골라 종오리로 사용하는 편법까지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F1 종오리라 불리는 이 종오리는 종란생산성이나 부화율 등 생산성이 낮아 결국 오리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오리협회가 F1근절을 위해 종오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초기 단계라 정착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F1입식으로 인해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리 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협회뿐만 아니라 회원사, 사육농가들이 솔선수범해 반드시 F1오리는 근절해야 한다.

또 종오리데이터베이스 사업도 역시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는데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오리 농가에 대한 더 많은 교육과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나아

가서는 육용오리 데이터베이스 사업도 추진해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백색육과 적색육을 장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오리고기 만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소비자들의 오리고기에 대한 인식이 좋기 때문에 생산량만 받쳐준다면 앞에서 말한 대로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산업임을 알 수 있다.

오리 산업은 2012년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산업의 단점을 보완, 극복해 이제 축산업의 주축 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이다.

오리 산업이 잠재력만 있는 산업이 아닌 실제 축산업을 주도하는 품목으로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오리산업 전망 및 발전방향



고성진
한국농어민신문
기자

2011년 축산업계는 FMD(구제역)와 HP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른 여진으로 힘든 한해를 보냈다. 전국적으로 350여만 두의 소·돼지가 매몰 처분됐고, 지난해 발생한 AI로 600여만 마리의 오리와 닭이 땅에 묻혔다.

국가적 재앙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피해였다. 피해 농가들로서는 하루아침에 생계가 끊기면서 어느 해보다 팍팍한 한해를 보냈다. 보상금이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가장 많았다.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농가들의 마음은 아스팔트 도로만큼이나 차갑고 어두웠다. 오리 산업도 AI 여파로 흥역을 겪었다. 종오리가

무더기로 매몰 처분되면서 당장 수급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다. 새끼 오리의 생산 기반이 급격하게 무너진 상황에서 수입 오리고기 물량도 급격하게 늘었다. 우려대로 올해 초 극심한 물량 부족으로 상반기 산지 오리가격은 1만 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FMD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대체식품 차원에서 반사이익 효과도 어느 정도 작용되면서 가격 상승세는 이어졌다.

하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오리 산업의 명암은 극명하게 갈렸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오리가격이 급격하게 하향세로 돌아섰다.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상반기에 무분별하게 이뤄진 F1오리의 불법 입식이다. 협회 차원에서 불법 입식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지만 힘에 부친 모습이었다. 애당초 협회 차원의 통제와 단속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기에 안타까움은 더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수차례 AI를 겪은 오리 산업은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내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위기라는 상황이면에는 기회도 분명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농가의 무분별한 불법 입식은 악순환을 낳았다. 게다가 오리고기 수요가 줄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계열업체들도 오리 산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오리 산업은 또 다른 국면에 처해있다.

지난 10년간 오리 산업의 성장세는 실로 엄청났다. 축산업 중 가장 먼저 수입이 완전 개방됐음에도 10년 동안 경이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축산업 주요 품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리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런 만큼 오리업계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고, 수급 문제와 F1오리 불법 입식 등에 대

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선진국들과의 잇따른 FTA로 국내 축산 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가축사육제한 조례 등으로 축산업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는 기존 방식과 사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변 여건은 산업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면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산업 주체들이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려는 인식과 노력이 뒤따른다면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업계의 단합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리산업 성장 비결 ‘경쟁’ 아닌 ‘공생정신’



김재민
농축유통신문
부장

부화-농가-계열주체 공생 위해
새해 수급조절 방안 모색해야

몇 년 전 월간 오리마을에 “우리 축산업의 마지막 블루오션, 오리산업”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했던 기억이 난다.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표현하는 블루오션이라는 말로 오리부분의 성장가능성을 이야기했었고 또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지적한 바 있다. 시간이 2년여나 지났지만 오리산업을 보면 아직도 잠재력은 크지만 유망주 단계를 벗어나기에 아직 해결해야할 미완의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